

## 새털공예 《백두밀림》



2013년 4월 15일을 맞으며 조선을 방문한 중국의 어느한 유한공사 리사장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흡모심을 간직한 리사장은 자신이 직접 100여종에 달하는 새들의 깃털을 수집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40여일에 걸쳐 선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

선물에는 백두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꿋꿋이 계승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끊임없이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바라는 축원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